

7층 '지장보탑' 건립...참회기도로 세상 밝혀

양산 불광사(佛光寺)

부산에서 울산으로가는 7번 국도변 경남 양산시 웅상을 주진리에 소재한 불광사(佛光寺)는 앞으로는 저수지를 바라보며 열리는 사찰을 둘러싼 작은 봉우리들이 산문을 형성하고 있는 천성산 절기의 명당에 자리 잡고 있다.

지난 91년, 주지 청봉스님이 이곳에 터를 마련하고 불광사를 개장한 이후, 지장기도가 있는 날이면 영남 지역 수많은 불자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천성산 자락에 아담하게 자리한 불광사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맑은 약수가 흐르며 마을 사람들은 '불당굴(佛堂谷)'이라 불러 예전부터 법당을 이어온 터로 알려져 있다.

사는 지역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사찰로도 유명하다. 사찰에서 매일 월 1일 심선계 법회를 열고, 15일에는 지장재일 천도재를 봉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을 위한 정기적인 복지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법당을 마련해 젊은 불자들을 위한 포교에도 적극적이다.

이에 질세라 주진리 마을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신도회를 조직해 불광사를 찾아가 하면 사찰 행사가 있는 날에는 직접 도로에 나와 교통지도 자원봉사를 한다. 현재 불광사 신도 가구는 1,500여호에 이른다.

영남불교 범음범패 대학 운영

지장기도 영험도량...독거노인돕기 등 봉사

정갈한 법당의 단청과 벽화가 눈길을 사로잡는 불광사 대웅전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측에 노사나불, 우측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봉안돼 있다. 또한 중단의 좌측에는 지장보살님을, 우측에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을, 하단에는 일백사위 신장님을 모시고 있다.

사실적인 묘사와 깨끗함이 돋보이는 법당 후면의 지장보살 벽화에서 알 수 있듯이 불광사는 '지장대재' '조상천도제'를 여법하게 봉행하는 이튿날 지장기도 도량이다. 표충사 부주지를 역임하고 통도사 상노전 총책임자를 맡았던 청봉 스님이 이곳에서 12년간 꾸준한 지장기도를 드리면서 자연스레 불자들 사이에 지장기도도량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시골마을의 작은 절'에서 시작한 불광

사지는 지역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사찰로도 유명하다. 사찰에서 매일 월 1일 심선계 법회를 열고, 15일에는 지장재일 천도재를 봉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을 위한 정기적인 복지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법당을 마련해 젊은 불자들을 위한 포교에도 적극적이다.

이에 질세라 주진리 마을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신도회를 조직해 불광사를 찾아가 하면 사찰 행사가 있는 날에는 직접 도로에 나와 교통지도 자원봉사를 한다. 현재 불광사 신도 가구는 1,500여호에 이른다.

주지청봉스님은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인 해룡 스님으로부터 영남 범음범패 통도소리를 전수받아 통도사 승가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해룡 스님이 총장을, 청봉 스님이 학장을 맡아 불광사에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을 개설하고 30여명에게 소리를 전수하고 있다.

스님은 "최근 전수자들이 부족해 범음범패의 전통이 점차 그 맥을 잃어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불교 전통의식 계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리를 배우는 불자들 대부분이 불교전통문화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 스님은 "재가불자들의 참여가 불교문화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7층 지장보탑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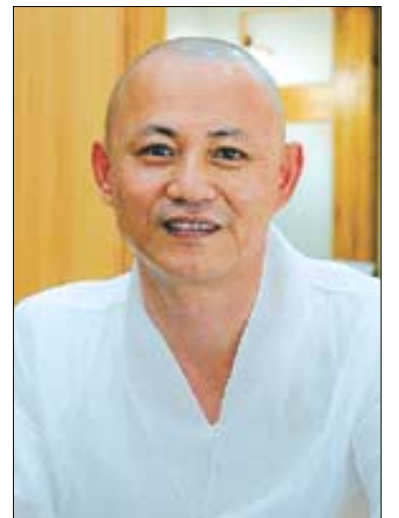
범음범패 통도소리 전수받아

7층 지장보탑 불사 청봉 불광사 주지

"평생의 원으로 부처님의 뜻에 보답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세상에 알리고자 지장보탑전을 불사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양산 불광사 주지 청봉 스님은 "세속에 인간미가 메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지장보살 기도도량"이라고 불광사를 소개했다.

청봉 스님은 "대웅전 뒷마당에 터를 마련하고 평생을 바쳐서 지장보탑전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7층에 지장보살을 모시는 지장전을 만들고 2층에서 6층까지는 1만불을 봉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님은 이어 "1층에는 설법전을



1층 설법전...법회·불교 교육·문화강좌

2~6층까지 1만불 봉안...7층에 지장전

마련해 불교대학 교육과 문화강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장보살기도전을 올리던 지난 5월 18일 부처님이 승몽하는 꿈을 꾸 뒤 대웅전 지장보살 미간백호상에서 꽃을 발견했다"는 스님은 "3천년만에 한번 핀다는 우담바라가 불광사에 핀 것은 원만한 불사를 서원하는 불자들에게 부처님이 가피를 내리신 일"이라며 크게 기뻐했다.

스님은 "지장기도 중 대웅전 지장보살 상에 우담바라가 핀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미간백호상에 나뉜 것은 역사상 유래

가 드문 일"이라고 설명하고 "불광사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우담바라 천년 환희 만등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봉 스님은 4세 때 김일호 스님 문하로 출가해 불·법·승 삼보 사찰로 불리는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순천 송광사를 두루 거치고 불광사에 안착했다.

밀양 표충사 부주지, 영축총림 양산 통도사 상노전 총책임자를 역임한 스님의 저서로는 『불자의 상식 반야바라밀』, 『지장보살 약찬계』 등이 있다.



◇대웅전 전경.



◇영남범음 범패 가운데 '회심곡'을 시연 중인 주지 청봉스님.

7층 지장보탑·지장보살 1만불 봉안불사

모 연 문

귀의삼보하옵고,
금번 불광사에서는 7층 지장보탑과 지장보살 1만불 봉안불사를 봉행하고 있사오니 불자님들께서는 수시 동참하시어 부디 지장보살님의 영험을 가득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고,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옵기를 발원합니다.

- ♣ 안내
 - ▲1인 1평불사
 - ▲만등불사 동참금 1년등 3만원(예미년 일년등)
 - ▲매월(음력) 초하루 환희법회
 - ▲지장대재 조상천도제는 음력 15일날 입재하여 15일(초재), 16일(2재), 17일(3재), 18일(회향).
- ♣ 차량운행
 - ▲해인병원(덕계)앞 오전 9시부터 평일 1시간간격, 행사일 30분 간격
- ♣ 위치
 -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656번지 (055)364-4747, 364-4848
- ♣ 불광사 인근에 지장보탑을 건립할 부지를 시주하실 인연을 찾습니다.



◇'환희만등법회' 중 행렬을 지어 지장보살님전 부처님꽃에 참배하는 불자들.

대한불교 조계종 천성산 불광사 주지 청봉 합장

문의 : (055)364-4747, 364-4848